

##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인식 조사

임 채 완 (전남대학교 교수)

### ◆ 논문 요약 ◆

러시아 연해주는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남북한이 공동합작으로 경제적 진출이 가능한 지역이며,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마찬가지로 북한출신 고려인, 중국 조선족, 재일·재미한인 및 한국인이 접촉 가능한 지역이다. 연해주는 확실히 여러 나라에 흩어진 한민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며, 남북한의 대치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고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줄 장소 중의 하나인 것이다. 현재 연해주 고려인 수는 약 3만명 정도이며, 그들은 주로 우수리스크, 빠르티잔스크, 블라디보스톡, 나호츠키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연해주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북한·통일관을 조사·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의 북한 통일관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분석을 토대로 인터뷰에 의한 경험적 조사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연해주 고려인들의 북한관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고려인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인민의 김정일체제 지지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의 개방이 소극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체제가 대체로 그럭저럭 유지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자유', '평등', '민주', '인권', '경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교 우위 분야가 '군사력'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들은 남북한 이질화 정도가 '언어', '여가 생활', '가족생활', '풍습', '직장생활'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남북한 관계 개선 최우선 분야는 '정치적 신뢰구축'이며, 그들은 '민간과 정부의 공동 추진 방식'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을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연해주 고려인들의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근거는 '민족의 재결합'이다. 그들은 남북한 통일 시기에 대하여 대체로 20년 이내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통일 방안은 '교류·협력에 의한 합의 통일'이며, 남북한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 '북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고려인들은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의 전 영역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통일 환경 기반 조성 및 시베리아의 개발참여를 효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연해주 고려인들과 경제·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I. 서론

### 1. 연구 목적

남북통일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다 그러나 남북분단의 역사적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통일은 그 주체인 남북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남북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환경 변수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반도 주변 열강만을 고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민족통일을 원한다면 또 다른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반도 주변국가에 살고 있는 해외 한인들의 가치와 역할이다. 그러한 선례로 중국의 조선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북한 사회에 외부 세계의 변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적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연변조선족 자치주와 중국 기타 조선족 집거구는 남북한과 해외 한인들이 대화와 교류를 하는 완충지가 되었다. 따라서 조선족은 남북대화과 교류의 촉매 또는 매개자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조선족과 비슷한 처지의 동포로 러시아 연해주에 고려인들이 있다. 구소련의 체제 전환 이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자신들을 ‘고려사람’, ‘소련 조선사람’, ‘재소 한국인’, ‘소련동포’, ‘소련교포’, ‘소련 한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20세기에 불행했던 한민족의 역사와 세계사적 흐름의 큰 변화들 속에서 잉태되었다.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소련적인 정체성을 수용하여 ‘소련인민’임을 매우 뚜렷하게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서 구소련의 소수 민족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130여 년 동안 러시아 또는 구소련 체제의 복합 문화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정체성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소련 국적의 소련인으로서 긍지를 갖는 정체성의 ‘창조’에 힘써 왔다.<sup>1)</sup>

한편, 그들의 거주 지역 가운데 하나인 연해주는 한민족의 회화와 설움이 서린 곳이며, 독립 국가 연합이 붕괴된 이후 고려인들이 다시 재이주를 시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sup>2)</sup>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 연해주는 남

1) 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통일문제연구』, 2002년 하반기호 통권 제38호(2002), p. 176.

북화해·협력 시대에 남북한이 공동합작으로 경제적 진출이 가능한 지역이며, 중국의 조선족, 북한 출신 고려인 및 한국인이 접촉 가능한 지역이다

연해주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큰땅치’와 사할린에서 온 ‘화태치’, 북한에서 온 ‘북선치’ 그리고 남한에서 온 ‘남한치’가 모인 장소이다. 또한 연해주는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건너와 그곳에서는 한국어가 통용어를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연해주만큼 여러 나라에 흩어진 한민족이 만나는 장소도 없을 것이며, 남북의 대치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고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줄 장소가 있다면 그 곳이 연해주 일 것이다.<sup>3)</sup>

현재 연해주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인 문제제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해주에 대한 연구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러시아의 이민사 영역이고, 둘째는 러시아에서의 항일운동이며, 셋째는 연해주지역 한인들의 실태조사이고, 넷째는 농업을 위시한 실용적 연구이다.<sup>4)</sup>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해주 고려인에 관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화, 역사, 교육, 경제적 활동 등으로 이들의 북한·통일관에 관한 조사 연구는 드물다.<sup>5)</sup>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한은 화해·협력의 시작 단계에 놓

2) 연해주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는 18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들의 가장 큰 역사적 비극은 스탈린 체제하에서의 강제 이주 사건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이원봉, “중앙아시아 고려인 강제이주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제8권 제1호,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01. 6. 참조

한편, 이들의 비극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들 다수가 무국적 상태로 몰락하면서 빈곤과 범죄, 민족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박진호, “연해주 고려인 정착촌을 가다: 국적 없이 붕 떠버린 국제미아, 고려인,” 『월간 말』 통권 199호, 2003.1, pp.100-105 참조.

3)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p. 219.

4) 이광규, 위의 책, p. 16.

5) 러시아 고려인들의 북한·통일관에 관한 연구로는 통일원 『통일문제에 관한 해외동포 여론조사-아·태지역 교민을 중심으로』, 서울: 현대리서치연구소, 1991. 임채완, “재소한인의 정체성에 관한 조사연구,” 『통일문제연구』, 전남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1993. 공보처,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95. 강재식, “CIS 체제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의 생활 문화와 민족정체성: 현지 설문조사의 분석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8권 제1호,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01. 6. 등이다. 그러나 한반도 접경지역인 연해주 지역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연구물은 없는 실정이다

여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과 의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한반도 주변국가에 살고 있는 해외 한인, 그 중에서도 연해주 고려인의 역할은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공산주의 지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북한 사회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위치와 역사를 가진 그들이 과연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인식·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는 한반도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의 북한관, 남북관계 인식 그리고 통일관을 조사·분석하려고 한다.

##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의 북한·통일관에 관한 선행 연구와 문헌 분석을 토대로 인터뷰에 의한 경험적 조사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한 측정 도구의 제작을 위해 연해주 고려인의 북한관(6문항), 남북관계 인식(15문항), 통일관(10문항) 등을 영역별로 문항 시안을 작성하고 몇 차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삭제·수정·보완한 후 배경 변인 조사(12문항)를 포함하여 총 43문항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조사 영역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하위 영역으로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먼저 연해주 고려인의 북한관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도·북한의 대(對)남한 위협의 정도·북한의 인권 상황·김정일 체제 지지도·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 및 북한의 장래에 대한 인식 등을 설정하였다.

둘째, 그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남북한 우위 영역 비교·남북한 이질화 수준·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사업 분야·남북경제협력 추진 방식·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인식 등을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고려인들의 통일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에 대한 견해·통일의 근거·통일 시기 전망·통일 방안·통일 장애요인·통일 이후 체제·통일 이후 제 영역의 변화 전망 등을 설문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lt; 표 1 &gt; 배경변인별 표집 구성

변 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성 별	남	47.7
	여	52.3
연 령	10대	21.8
	20대	30.5
	30대	15.1
	40대	18.6
	50대	14.0
거주지역	대도시	11.9
	중소도시	64.6
	소도시	7.4
	농촌	15.8
조사지역명	빠르티잔스크-나호츠키	2.5
	블라디보스톡	29.8
	우수리스크	42.5
	정착촌	25.3
주거형태	아파트	41.8
	개인주택(땅집)	31.2
	임시숙소(군막사)	17.0
집의 소유형태	개인소유	53.3
	임대	44.2
재이주 시기	1990년대 이전	35.8
	1990년대 이후	63.9
종 교	기독교	58.6
	천주교	3.9
	불교	5.3
	러시아정교	6.7
	무교	21.4
교 육	무학	1.4
	초등학교	3.5
	중·고등학교	52.6
	대학	40.7
	대학원	1.1
직 업	공무원, 군인, 경찰	3.2
	노동자 및 기술자	6.0
	농민	27.7
	언론, 방송인	1.4
	교원 및 연구원	3.5
	사업가 및 자영업	12.3
	의사 및 간호사	2.8
	학생	27.7
	기타	15.1
	수 입	500루블 이하
500~1,000		23.9
1,000~2,000		18.2
2,000루블 이상		33.7
방문 경험	한국	17.9
	북한	1.1
	한국과 북한	3.2
	없다	77.9

조사 연구 지역은 빠르티잔스크-나호츠키,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정착촌 등 연해주의 도시·시 외곽·농촌 지역이다. 조사 지역에서 표집된 면담 인원은 총 285명이다. 현지 조사 연구는 2002년 3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인터뷰 조사를 하였다. 현지 조사에 참여한 면접조사원은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돕기운동회 김재영 자원봉사자 외 3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통계학 상담실에서 SPSS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치는 백분비(%), 자유도(df),  $\chi^2$  분석, 집단간의 차이 유의도 검증이다.

## II. 북한관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과 중국 조선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인구의 상당한 부분은 북한에서 이주한 후손들이다 이러한 지리적·역사적 배경은 북한과 고려인 그리고 조선족간의 상당한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몇 십년간 사회주의체제를 경험해 온 북한주민, 고려인, 그리고 조선족들 간에는 정치·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고려인 또는 조선족들이 북한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북한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sup>6)</sup>

이 연구는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북한·통일관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연해주 고려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그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북한의 대(對)남한 위협의 정도·북한의 인권 상황·김정일체제 지지도·김정일정권의 개방 가능성 및 북한의 장래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6) 저자는 “연변조선족의 북한·통일관 조사연구”(『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4호, pp. 163-198.) 일문에서 조선족의 북한·통일관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비교분석적 시각에서 보다 폭 넓은 연구를 시도하려고 한다.

## 1. 북한에 대한 관심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주위 사람들과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전체의 29.5%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끔 한다’는 응답도 28.4%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반응을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으로 양분할 경우 북한에 관하여 대화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전체의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조선족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초까지 저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표집된 500명의 면담자 중에서 약 65.6%의 응답자는 ‘북한에 대하여 대화를 한다고 응답하였다.’<sup>7)</sup>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경험이 비슷한 조선족과 고려인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도에서 왜 현격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우선 이 원인은 체제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가 고려인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저하시켰을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남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그들이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개인적 이익추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인민과의 접촉 빈도의 차이이다. 연변조선족과 북한 인민간의 교류는 대체로 꾸준히 유지해 왔다. 그러나 연해주 고려인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와 한국어 상실로 인하여 북한인민과의 접촉과 교류가 적었다.

<표 2> 북한에 대한 관심도

N	반 응 구 분 (%)				
	자주한다	가끔한다	별로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285	6.3	28.4	29.5	20.0	15.8

7) 임채완, “연변조선족의 북한·통일관 조사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4호 2002년 통권 39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 169-170.

변인별 반응을 분석해 보면, 여성(35.6%)은 남성(33.9%)보다 약간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령별로 50대(57.5%)가 가장 높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인 반면, 30대(25.6%)가 가장 낮은 관심을 보였다. 거주지역별로 대도시(32.4%)와 중소도시(30.4%) 거주 고려인의 북한 관심도는 소도시(42.9%)나 농촌(51.1%) 거주 고려인 보다 낮다. 또한 남북한 가운데 최소한 어느 한 국가라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려인은 방문 경험이 전혀 없는 고려인 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 2.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들이 북한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한국에 대하여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31.9%의 고려인들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전체 반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이후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대체로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위협적이다’(21.1%) 보다는 ‘위협적이지 않다’는 반응(46.7%)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과 비교하여, 45.8%의 연변조선족들은 북한의 전쟁돌발 가능성이 있다고 반응을 하였다.<sup>8)</sup>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들의 북한인민과의 빈번한 접촉과 북한 방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

N	반응구분 (%)					
	매우 위협적이다	다소 위협적이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거의 위협적이지 않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모르겠다
285	4.6	16.5	21.1	15.1	10.5	31.9

8) 임채완, 앞의 논문, p.172.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반응 비율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남성(54.1%)이 여성(40.2%)보다 높았다. 또 연령별로 30대(53.6%)가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50대(32.5%)는 ‘위협적이다’라는 응답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정착촌’ 거주 고려인은 빠르티잔스크-나호츠키,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거주 고려인 보다 ‘모르겠다’(41.7%)는 반응을 가장 높게 보였다. 주거 형태별로 군막사(40.3%) 거주 고려인, 재이주 시기별로 ‘1990년대 이후’(35.4%) 고려인 등이 ‘모르겠다’는 반응을 높게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분석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주해 온 상당수의 고려인들이 아직은 북한 정세에 무관심하거나 북한 상황을 잘 모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 및 남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려인들은 방문 경험이 없는 고려인들 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3. 북한의 인권 상황

일반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sup>9)</sup> 연해주 고려인들이 인식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조사 결과, 고려인들은 ‘나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7%를 차지한 반면, ‘좋다’는 응답률은 4.9%로 나타나 대다수의 연해주고려인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변 조선족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9) 최근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로는 통일부 『북한인권백서』, 2000. 김명기, 『북한주민의 인권과 국제법』, 법서출판사, 2000. 이원웅,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1호, 한국정치학회. 최성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북한인권론』, 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전홍택, “탈북난민의 인권문제와 국내외적 대응,” 「21세기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와 동북아의 평화」, 호남정치학회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호남지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등이 있다.

10) 연변 조선족의 경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4.4%에 불과한 반면, ‘약간 나쁘다’(14.4%), ‘아주 나쁘다’(50.0%)와 같이 부정적으

&lt; 표 4 &gt; 북한의 인권 상황

N	반응구분 (%)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아주 나쁘다	모르겠다
285	1.4	3.5	10.2	24.6	36.1	24.2

북한의 인권이 ‘나쁘다’는 반응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별로 ‘30대’(72.1%)와 ‘40대’(71.7%)가 북한 인권상황이 아주 나쁘다고 반응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북한 인권 상황이 나쁘다고 반응하고 있다 (‘농촌’ 33.3%, ‘소도시’ 38%, ‘중소도시’ 65.7%, 대도시 85.3%). 또한 ‘대학’(73.2%) 및 ‘대학원’(66.7%) 등의 학력을 가진 고려인들은 ‘무학’(50%), ‘초등학교’(60%), ‘중·고등학교’(51.3%) 등의 학력을 가진 고려인들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나쁘게 인식하고 있다. 직업별로 ‘교원 및 연구원’(80%), ‘사업가 및 자영업’(80%), ‘의사 및 간호사’(87.5%), ‘공무원, 군인, 경찰’(55.5%) 등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수입이 높은 고려인일수록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려인은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분석은 북한 인권에 대한 고려인들의 반응이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이주 시기별, 종교별, 교육 정도별, 직업별, 그리고 수입별로 비판적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 4. 북한 인민들의 김정일체제 지지도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들은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모르겠다’(36.1%)는 반응을 제외한다면 고려인들은 ‘약간 반대하고 있다’(26.3%), ‘적극 반대하고 있다’(15.8%), ‘다소 지지하고 있다’(13.0%), ‘적극 지지하고 있다’(7.0%)

로 응답한 경우가 64.4%를 차지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채완, 앞의 논문, p. 173.

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를 반대한다는 응답률(42.1%)은 지지한다는 응답률(20.0%)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한 설문을 통하여 북한을 둘러싼 3개의 접경 지역의 주민, 즉 중국 연변의 조선족,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 남한 주민들에게서 얻은 반응은 동일하지 않다. 연해주 고려인과 연변 조선족의 경우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반대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sup>11)</sup> 재중 탈북자 역시 ‘체제 비판 행위’와 ‘체제 비판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sup>12)</sup>

그러나 남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할 것이라는 인식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인다.<sup>13)</sup>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남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맹목적이고 충성스러운 지지의 이미지와 달리 상당수의 북한 인민들은 그들 체제 및 정권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다.<sup>14)</sup>

<표 5> 북한 주민들의 김정일체제 지지도

N	반 응 구 분 (%)				
	적극 지지하고 있다	다소 지지하고 있다	약간 반대하고 있다	적극 반대하고 있다	모르겠다
285	7.0	13.0	26.3	15.8	36.1

변인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반대하고 있다’(45.1%)는 반응이 ‘여

11) 연변 조선족의 경우, 응답자의 24.8%만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4%였다. 임채완, 앞의 논문, p. 174.

12) 임채완, “재중 탈북자의 북한 사회주의체제 인식조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 『통일정책연구』 제10권 제2호(2001. 12), p. 147.

13) 한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체제를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38.4%로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률 33.0%에 비해 다소 우세하였다. 통일연구원,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14-15.

14) 서재진은 이렇게 북한 당국의 영향력이 배제된 공식적 사회의 외곽에 존재하는 집단의 가능성을 ‘제2사회’로 표현하고 있다.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주의 구조와 사회주의 의식의 이중성 연구』(서울: 나남, 1995).

자'(40.8%)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 '20대'가 '반대하고 있다'(48.8%)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지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대'(26.2%)가 가장 높았다. 한편,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언론·방송인', '교원 및 연구원', '의사 및 간호사' 등은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 5. 김정일 정권의 개방 여부

이 연구는 김정일체제의 개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김정일 정권이 북한을 개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6.5%)이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소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다’(21.1%),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12.6%),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이다(8.8%)의 순서로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북한이 개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방의 범위에 있어서 전면적 개방보다는 소극적 차원의 개방에 머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연해주 고려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연변 조선족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sup>15)</sup>

<표 6> 북한의 개방 가능성

N	반 응 구 분 (%)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이다	소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다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285	8.8	21.1	12.6	56.5

변인별로 살펴보면, 북한이 개방할 것이라는 응답은 ‘남자’(39.3%)가 ‘여자’(21.8%)보다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 대도시(43.8%)에 사는 고려

15) 이와 비슷한 설문 조사에서 연변조선족들은 북한이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다’(62.8%),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21.8%), ‘모르겠다’(9.4%),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다(6%)의 순서로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연변 조선족 역시 대다수가 북한이 개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폭은 전면 개방보다는 소극적인 차원의 개방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였다. 임채완, 앞의 논문, pp. 175-176.

인들이 중소도시 이하(중소도시 30.0%, 소도시 28.6%, 농촌22.2%)에 거주하는 고려인보다 북한의 개방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였다. 연령별로 '40대'(36.5%)가 북한의 개방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30대'(23.3%)는 북한이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재이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27.7%)에 이주한 고려인보다 '1990년대 이후'(31.7%)에 이주한 고려인이 북한의 개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직업별로는 '언론·방송인'(75%), '교원 및 연구원'(80%), '의사 및 간호사'(62.5%) 등이 북한의 개방 가능성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 6. 북한의 장래

연해주 고려인들은 북한의 장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귀하는 북한의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그럭저럭 생존해 나갈 것이다’(31.2%), ‘경제난으로 붕괴할 것이다’(26.3%), ‘모르겠다’(21.8%),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할 것이다’(19.6%)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연해주 고려인들은 북한이 앞으로 그들 체제를 그럭저럭 유지해 나갈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난으로 체제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도 상당히 있었다.

< 표 7 > 북한의 장래

N	반응구분 (%)			
	경제난으로 붕괴될 것이다	그럭저럭 생존해 나갈 것이다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할 것이다	모르겠다
285	26.3	31.2	19.6	21.8

변인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훨씬 높게 평가하였다. 또 10대는 북한의 발전 가능성에, 20대는 북한이 그럭저럭

생존해 갈 것이라는 전망에, 40대는 북한이 경제난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에 각각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직업별로 반응한 최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북한의 붕괴보다는 생존 가능성에 더 많은 반응을 보였다.

이상으로 연해주 고려인들의 북한관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반응 결과를 분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해주 고려인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별로 높지 않다 응답자의 65.3%가 북한에 관하여 대화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둘째, 연해주 고려인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해주 고려인들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46.7%가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21.1%가 ‘위협적’이라고 응답했다. 셋째, 연해주 고려인들이 인식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연변 조선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0.7%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좋다’는 응답률은 4.9%에 불과했다. 넷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하기보다는 반대할 거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김정일 체제를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42.1%인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0.0%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김정일 정권 하에서 북한이 개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방의 범위에 있어서는 소극적 차원의 개방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여섯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북한의 장래가 그럭저럭 유지될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난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히 있었다.

연해주 고려인들의 이러한 북한관은 중국의 연변 조선족 및 한국민들의 북한관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연해주로 이주하여 정착한 고려인들은 북한에 대한 정황 및 사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일관된 북한관을 갖고 있지 않다.

### Ⅲ. 남북관계 인식

이 연구는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남한과 북한 및 남북관

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또는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북 관계 인식 성향을 남북한 우위 영역 비교, 남북한 이질화 수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사업 분야,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식,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 1. 남북 우위 영역 비교

중양아시아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선행 연구에서는 고려인들이 대부분 북한보다는 남한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16)</sup> 연해주 고려인들은 남북한에 각각 우세한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자유·평등·민주·문화 및 예술·군사력·인권·경제)에서 남북한 중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조사 결과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총 7개의 비교 지표 중 남한이 우월하다고 평가한 부문은 ‘자유’(75.8%), ‘평등’(57.2%), ‘민주’(62.5%), ‘인권’(60%), ‘경제’(76.1%), ‘문화·예술’(47.7%) 등 6개영역이었다. 반면, 북한이 우월하다고 평가한 부문은 ‘군사력’(40%) 1개이다.

<표 8> 남북한 우위 분야 비교

N	분 야	반 응 구 분 (%)		
		남한	북한	모르겠다
285	자 유	75.8	3.5	18.9
	평 등	57.2	15.1	28.3
	민 주	62.5	13.7	23.2
	문화·예술	47.7	25.3	25.3
	군사력	21.4	40.0	37.2
	인 권	60.0	7.7	29.8
	경 제	76.1	3.5	18.6

16)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공보처,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한국 갤럽조사연구소, 1995, pp. 475-476. 임채완, “재소환인의 정체성에 관한 조사연구,” 『통일문제연구』,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3, p. 294.

이와 같이 연해주 고려인들은 중국 연변조선족들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비교 우위 항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해주 고려인들과 연변 조선족들은 ‘자유’, ‘민주’, ‘인권’, ‘경제’ 등의 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한이 우위에 있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연변조선족들은 북한이 우월한 분야로 ‘문화·예술’과 ‘군사력’ 등 2개영역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연해주 고려인들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이 우위에 있는 분야가 ‘군사력’이라고 했다. 따라서 연해주 고려인과 연변조선족간의 인식 차이는 ‘평등’에 관한 평가이다. 64.4%의 연변조선족은 북한이 남한보다 “평등”하고 응답한 반면, 57.2%의 연해주 고려인은 남한이 더 “평등”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직업별로 ‘의사 및 간호사’와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려인들은 ‘자유’에 대한 남북한 우위 비교에서 남한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남북한 가운데 어느 쪽이 평등한가에 대해서도 교육별로 ‘무학’, ‘초등학교’,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고려인이 북한이 더 평등하다고 반응했다. ‘군사력’ 비교 우위에서 절대 다수의 고려인이 북한이 더 우세하다고 응답한 반면, ‘연령별’로 ‘10대’와 직업별로 ‘교원 및 연구원’들은 남한이 더 우세하다고 응답하였다.

## 2. 남북한간 이질화 수준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이 남북한 이질화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간 (언어·가족생활·직장생활·여가생활·풍습)에서 남북한간 이질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연해주 고려인들은 ‘언어’(62.5%), ‘여가생활’(58.3%), ‘가족생활’(57.9%), ‘풍습’(41.1%), ‘직장생활’(38.4%)의 순서로 이질화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비슷한 조사에서 연변조선족들은 ‘여가생활’(87.8%)이 가장 이질화 정도가 심하다<sup>17)</sup>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북 이질화가 가장 적은 부분은 ‘풍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17) 임채완, 앞의 논문, p. 180.



<표 9> 남북한 이질화 수준

N	분 야	반 응 구 분 (%)			
		매우 크다	약간 크다	차이 없다	모르겠다
285	언 어	17.2	45.3	13.0	24.6
	가족생활	22.8	35.1	12.3	29.5
	직장생활	18.4	20.0	3.5	27.0
	여가생활	42.5	15.8	7.0	33.7
	풍 습	21.1	20.0	23.9	34.4

한편 남한과 북한을 모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연해주 고려인들은 ‘직장 생활’(77.7%)의 분야가 가장 이질화가 심하다고 반응하였다.

### 3. 남북한 우선 사업 분야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들이 남북한간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 고려인들은 ‘정치적 신뢰구축’(34.4%)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밖에 고려인들은 ‘경제 교류 및 협력’(26.7%), ‘이산가족 상봉’(18.2%), ‘군사적 대결 해소’(10.9%), ‘문화·체육 교류’(6.3%), ‘기타’(3.2%)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연변 조선족과 한국인들은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일순위로 꼽아 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sup>18)</sup>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역시 최근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들의

18) 먼저 중국 조선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N	반 응 구 분 (%)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대결 해소	경제 교류 및 협력	체육·문화 분야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	기 타
500	100(20.0)	79(15.8)	227(45.4)	15(3.0)	71(14.2)	8(1.6)

임채완, 앞의 논문, p. 181. 한편, 한국민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많은 변인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도시의 ‘정착촌’, 주거형태의 ‘군막사’, 집의 소유 형태에서 ‘임대’, 재이주 시기에 있어 ‘1990년대 이후’, 직업에서 ‘기타’에 응답했던 고려인들)은 모두 ‘정치적 신뢰 회복’을 일순위로 뽑았다. ‘북한’ 또는 ‘한국과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려인 ‘사업가 및 자영업자’와 ‘의사 및 간호사’들,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경제 및 교류 협력’을 일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10>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사업 분야

N	반 응 구 분 (%)					
	정치적 신뢰회복	군사적 대결 해소	경제 교류 및 협력	문화·체육 교류	이산가족 상봉	기 타
285	34.4	10.9	26.7	6.3	18.2	3.2

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50대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적 대결 해소’(42.5%), 거주지역별로 대도시 거주 고려인이 ‘경제 교류 및 협력’(44.1%)을 우선 사업 분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농촌 거주 고려인은 ‘문화·체육 교류’(46.7%)를 최우선 사업 분야로 보았다.

#### 4.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법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들의 남북한 경제 교류 및 협력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고려인들은 이 문항에 대하여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54.7%), ‘모르겠다’(20.7%),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15.4%), ‘민간의 자율에

N	반 응 구 분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대결 해소	경제 교류 및 협력	체육·문화 분야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	기 타
1,200	15.9%	17.8%	37.9%	8.4%	19.6%	0.4%

통일연구원,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pp. 65-66. 재구성.

맡겨야 한다(6.3%), ‘경제협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2.5%)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표 11>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방법

N	반 응 구 분 (%)				
	민간의 자원에 맡겨야 한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 협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모르겠다
285	6.3	54.7	15.4	2.5	20.7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남자(61%)가 여자(49%)보다, 학력이 높을 수록(초등 50%, 중·고등 55%, 대학 57.8%) 민간과 정부의 공동 추진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려인들은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55.6%)는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5.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

이 연구는 고려인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 정상의 만남이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의 조사 결과, 고려인들은 ‘매우 그렇다’(38.9%), ‘약간 그렇다’(23.9%), ‘그저 그렇다’(16.8%), ‘모르겠다’(15.8%), ‘전혀 그렇지 않다’(4.2%) 등의 순서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연해주 고려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lt;표 12&gt;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

N	반응구분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285	38.9	23.9	16.8	4.2	15.8

지금까지 고려인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남한이 ‘자유’(75.8%), ‘평등’(57.2%), ‘민주’(62.5%), ‘인권’(60%), ‘경제’(76.1%), ‘문화·예술’(47.7%) 분야에서, 북한이 ‘군사력’(40%) 분야에서 더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둘째, 고려인들은 남북한 이질화가 ‘언어’(62.5%), ‘여가생활’(58.3%), ‘가족생활’(57.9%), ‘풍습’(41.1%), ‘직장생활’(38.4%)의 순서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연해주 고려인들이 생각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 사업은 ‘정치적 신뢰구축’(34.4%) 분야이다. 넷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방식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54.7%)는 항목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다섯째, 대다수의 연해주 고려인들은 남북 정상 회담이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 IV. 통일관

남북통일에 있어서 한반도 인접 국가의 제외 동포는 통일의 매개 및 촉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남북한 통일관은 어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장에서는 연해주 고려인들의 남북 통일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의 근거, 통일 시기 전망, 통일 방안, 통일 장애요인, 통일 이후 체제, 통일 이후 제 영역의 변화 전망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남북통일의 당위성 인식

이 연구는 남북통일에 대한 연해주 고려인들의 인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고려인들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1%로 가장 많았으며,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9.6%),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7.4%), ‘모르겠다’(7.4%)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연해주 대다수의 고려인들은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연해주 고려인들의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과거 구소련의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995년 독립국가연합(CIS)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은 31.5%에 불과했다.<sup>19)</sup> 결과적으로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연해주가 한반도와의 접경지대라는 점과 통일된 한반도가 적어도 연해주 고려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치리라는 기대감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19) 공보처가 1995년 구 소련의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통일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 (=400)	반응 구분 (%)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현재대로 있는 것이 좋다	모름/무응답
독립국가연합	31.5	53.8	7.2	7.5

출처: 공보처,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서울 : 한국궐립조사연구소, 1995), pp. 138-140. 재구성

&lt;표 13&gt; 남북통일의 당위성 인식

N	반응구분 (%)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모르겠다
285	62.1	19.6	7.4	7.4

변인별로는 여성(64.4%)이 남성(59.6%)보다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80%)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대(2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북한을 방문한 경험자가 극히 미미하지만 방북 경험자의 100%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경험자는 62.7%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2. 남북통일의 근거 인식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들이 남북한 통일의 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이 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보면, 고려인들은 ‘민족의 재결합’이 47.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전쟁 발생 방지’(16.8%),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13%), ‘이산가족 고통 해소’(11.6%), ‘경제발전’(10.5%) 등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남북통일의 첫 번째 근거로서 ‘민족의 재결합’에 응답한 것은 연변조선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sup>20)</sup> 그러나 두 번째 근거에 있어서는 연해주 고려인들이 ‘전쟁 발생 방지’(16.8%)에 응답한 반면, 연변 조선족들은 ‘경제발전’(17.2%)에 응답하였다. 이는 연해주 고려인들이 그들 국가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불안했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 임채완, 앞의 논문, p. 185.

&lt;표 14&gt; 남북통일의 근거

N	반응구분 (%)					
	민족의 재결합	전쟁 발생 방지	경제발전	이산가족 고통 해소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기타
285	47.7	16.8	10.5	11.6	13.0	0

남북한 통일의 근거로 ‘민족의 재결합’에 대하여, 성별로 남자(53.7%)가 여자(42.3%)보다, 연령별로 40대(56.6%)가, 지역별로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 3. 남북통일의 시기 전망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들의 남북통일의 시기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의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려인들은 ‘모르겠다’(36.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년 이내’(25.6%), ‘20년 이내’(17.2%), ‘30년 이상’(8.1%), ‘5년 이내’(7.7%), ‘30년 이내’(4.6%)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내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전체의 50.5%를 차지하였다.

&lt;표 15&gt; 남북통일의 시기 전망

N	반응구분 (%)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모르겠다
285	7.7	25.6	17.2	4.6	8.1	36.8

한편 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40대는 통일의 시기를 ‘10년 이내’와 ‘20년 이내’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으며, 50대는 ‘10년 이내’와 ‘5년 이내’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직업 별로 ‘사업가 및 자영업’자는 ‘20년 이내’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라고 반응하였다. 연해주 고려인들은 연변조선족과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의 시기에 대한 전망을 매우 다양하게

예측하고 있다.

#### 4. 남북통일 방안

이 연구는 연해주 고려인들의 통일 방안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의 바람직한 통일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고려인들은 ‘교류·협력을 통한 합의 통일’(39.3%)방안을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안으로 평가하였다 그 밖에 그들은 ‘남북한 자유 총선거’(26.3%),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방식’(14.7%), ‘강대국 중재에 의한 중립화’(7.4%), ‘무력통일’(5.6%), ‘기타’(4.6), ‘북한에 의한 한국의 흡수통일’(1.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6> 남북통일 방안 인식

N	반응구분 (%)						
	무력 통일	교류·협력을 통한 합의 통일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방식	북한에 의한 한국의 흡수 통일 방식	남북한 자유 총선거	강대국 중재에 의한 중립화	기타
285	5.6	39.3	14.7	1.4	26.3	7.4	4.6

고려인들은 변인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안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주목할 부분은 최근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들의 태도인 것이다. 이들은 남북한 통일 방안으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정착촌’ 39.4%, ‘군막사’ 36.8%, ‘임대’ 34.1%). 그 밖에 거주지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방식’(35.3%)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직업별로 ‘농민’(35.9%), ‘사업가 및 자영업’(28.6%), ‘의사 및 간호사’(50%)등이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가장 선호하는 통일 방안으로 응답하였다.



## 5. 남북통일의 장애요인

이 연구는 고려인들이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 통일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42.5%의 연해주 고려인들은 ‘북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을 남북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였다. 그밖에 고려인들은 남북한 통일의 장애요인을 ‘기타’(24.6%),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가’(22.1%), ‘한국 정부의 태도와 정책’(9.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북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을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한국 및 중국조선족의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sup>21)</sup>

<표 17> 남북통일의 장애요인

N	반 응 구 분 (%)			
	북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	한국 정부의 태도와 정책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가	기 타
285	42.5	9.8	22.1	24.6

## 6. 남북통일 체제

이 연구는 고려인들이 남북통일 이후 바람직한 체제를 무엇이라고 생각

- 21) 연변 조선족의 경우, 남북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북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53.2%),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가’(23.4%), ‘기타’(20.0%), ‘한국 정부의 태도와 정책’(3.4%)의 순서로 응답했다. 임채완, 앞의 논문, p. 187. 시기는 다르지만 한국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N (=1000)	반 응 구 분 (%)			
	북한 정부의 태도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태도	남한 정부의 태도	모름/무응답
한국	49.1	37.4	4.6	9.0

출처 : 공보처,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서울 :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1995), p. 118.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이 통일된 후 어떤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하여 고려인들은 ‘한국식 체제’(50.9%)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고려인들은 ‘한국과 북한의 혼합체제’(29.5%), ‘기타’(15.1%), ‘북한식 체제’(3.5%)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북한의 혼합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고 응답한 중국 조선족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과거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을 조사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22)</sup>

<표 18> 바람직한 남북통일 체제

N	반응구분 (%)			
	한국식 체제	북한식 체제	한국과 북한의 혼합체제	기타
285	50.9	3.5	29.5	15.1

그리고 고려인들의 일부(29.5%)는 ‘한국과 북한의 혼합체제가 남북한 통일 이후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고 응답하였다. ‘50대’ 고려인과 ‘농촌’ 지역 거주 고려인이 혼합체제를 가장 선호하였다.

## 7. 통일 이후 사회 제 영역의 변화 전망

이 연구는 고려인들이 남북통일 이후 사회 각 분야별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이 통일된 후 다음 사회의 각 분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22) 고재남은 독립국가연합의 현지답사 중 고려인 사회 지도자 및 개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남북한 통일체제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려인들은 통일된 국가의 정치·경제체제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체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가 가진 장점들, 즉 사회복지의 확대, 빈부격차의 축소 등과 같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고려인들이 주장하는 체제는 사회주의 사회의 장점들이 가미된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것이다. 고재남, 『독립국가연합 내 고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 외무부의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2-15(1993), p. 99.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려인들은 중국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인권의 전 영역에서 ‘개선될 것이다’라고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정치적 민주화’(81.7%), ‘경제성장’ (76.8%), ‘사회복지’(85.9%), ‘인권’(87.4%)의 영역이 개선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특히 인권문제가 크게 개선되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 표 19 > 통일 이후 사회의 분야별 변화 전망

N	분 야	반 응 구 분 (%)				
		크게 개선될 것이다	다소 개선될 것이다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소 악화될 것이다	크게 악화될 것이다
285	정치적 민주화	39.6	42.1	8.8	5.3	0.4
	경 제 성 장	51.9	24.9	3.9	15.1	2.5
	사 회 복 지	51.9	34.0	5.6	6.3	0.7
	인 권	54.4	33.0	7.7	2.8	0.7

지금까지 연해주고려인들의 남북한 통일관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통일에 대한 고려인들의 입장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둘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남북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민족의 재결합’(47.7%)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고려인들은 남북통일 시기에 대하여 ‘모르겠다’(36.8%)는 응답을 제외하고, ‘10년 이내’(25.6%)에 통일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넷째, 연해주 고려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 방안은 ‘교류·협력을 통한 합의 통일(39.3%)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시 중국 연변 조선족, 한국인의 통일관 조사 내용과 비슷하다. 다섯째, 연해주 고려인들이 인식하는 남북한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42.5%)이다.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한국 및 중국 조선족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남북통일 이후 바람직한 체제를 ‘한국식 체제(50.9%)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북한의 혼합 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고 응답한 중국 조선족과는 다르다. 일곱째, 고

려인들은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정치, 경제, 사회복지, 인권 등과 같은 사회의 영역에서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연해주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북한·통일관을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연해주 고려인들의 북한관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들은 연변조선족과는 달리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인민의 김정일체제 지지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의 개방이 소극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체제가 대체로 그럭저럭 유지될 것이라고 반응하였다. 둘째, 연해주 고려인들의 남북 관계 인식은 다음과 같다. 연해주 고려인들은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자유', '평등', '민주', '인권', '경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교 우위 분야가 '군사력'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들은 남북한 이질화 정도가 '언어', '여가생활', '가족생활', '풍습', '직장생활'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남북한 관계 개선의 최우선 분야는 '정치적 신뢰구축'이며, 그들은 '민간과 정부의 공동 추진 방식'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을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연해주 고려인들의 통일관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근거는 '민족의 재결합'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조선족에 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들은 남북한 통일 시기에 대하여 대체로 20년 이내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 방안은 '교류·협력에 의한 합의 통일'이며, 남북한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이다. 그들은 남북한 통일 이후 바람직한 체제가 '한국식 체제'(50.9%)라고 인식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북한의 혼합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고 응답한 중국 조선족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끝으로 고

러인들은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의 전 영역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이 조사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정부가 남북한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해주 고려인이 생각하는 남북한 통일 방식은 남북한 교류·협력에 의한 합의통일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남북한 화해·협력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해주 고려인들은 중국 연변조선족과 같이 북한의 장래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북한과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려인들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앞으로 정부주도형 민간교류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정부는 연해주 지역에서 한반도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민주평통지문회의와 같은 조직을 확대·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 NGO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연해주는 농업·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연해주 지역에서 남북한 공동출자 방식의 농업 교류·협력, 유통사업 분야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에 공동 참여, 그리고 송유관 설치 등 남북한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참여 등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연해주 고려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기 위하여 그들과 경제적·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재식, “CIS체제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의 생활문화와 민족정체성,” 『아태 연구』 제8권 1호,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01.
- 고재남, 『독립국가연합 내 고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 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2-15, 1993.
- 공보처,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5.
- 박진호, “연해주 고려인 정착촌을 가다: 국적 없이 붕 떠버린 국제미아, 고려인,” 『월간 말』 통권 199호, 2003.
- 이광규·전경수, 『재소한인-인류학적 접근-』, 서울: 집문당, 1993.
-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집문당, 1998.
- 이광규, 『재중한인』, 서울: 일조각, 1997.
- 이종훈,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연해주 재이주 현황과 과제,” 『한민족공동체』 3, 1995.
- 임채완, “재소한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9, 1993.
- \_\_\_\_\_,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의식,” 『국제정치논총』 39집 2호, 1999.
- \_\_\_\_\_, “재중 탈북자의 북한 사회주의체제 인식조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 『통일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01. 12.
- \_\_\_\_\_,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통일문제연구』 2002년 하반기호 통권 제38호.
- \_\_\_\_\_, “연변조선족의 북한·통일관 조사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4호 2002년 통권 39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주의 구조와 사회주의 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 1995.
- 통일연구원,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서울: 통일정책연구실, 1999.